

[ **영 화** ]

**암흑의 시대를 빛을 보다**

1930~1940년대 일제 강점기 다른 영화 속속 제작



'반칙왕' '장화홍련'의 김지은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할리우드 서부극 형식을 빌린 '만주웨스턴 무비'를 표방한 작품으로 현상 수배범, 열차 탈이범, 살인 청부업자가 출연한다.



송강호

식민지 조국의 우울한 기운이 사람들을 짓눌렀던 일제 강점기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암흑기였다.

이 시대를 다룬 영화 역시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초개처럼 바쳤던 독립투사들의 이야기가 스크린을 장악했고 2년전 개봉했다 흥행에 실패했던 '청연' 처럼 일제 강점기와 당시 인물을 조그만 '색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영화들은 심한 역풍을 맞았다.

하지만 2007년, 암울했던 1930~1940년대를 전혀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영화들이 속속 제작되고 있다. 지금까지 영화화된 적이 별로 없던 시대라 오히려 영화적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미개척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



이병헌

**만주벌판서 쌍권총 차고...**



정우성

가장 독특한 영화로 꼽히는 작품은 영화 제목도 특이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반칙왕' '장화홍련'의 김지은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 이 독특한 시대극은 할리우드 서부극 형식을 빌린 '만주웨스턴 무비'를 표방한 작품으로 현상 수배범, 열차 탈이범, 살인 청부업자가 출연한다. 주인공들은 무정부주의와 다국주의 번성했던 만주 벌판에서 쌍권총을 차고 오토바이를 탄 채 액션 활극을 벌인다.

100억원이 투입되는 대작인 이 작품이 더욱 기대를 모으는 것은 바로 배우들의 면면 때문이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총무로 최고의 배우 송강호를 비롯해, 이병헌과 정우성 등 좀처럼 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특급 남자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해피 엔드'의 정지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모던보이'는 1930년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독특한 사랑 영화다. 지난 2000년 문학동네 신인상 수상작인 이지형의 '망

송강호·이병헌·정우성 쓰리톱 '좋은 놈'

'낙랑클럽' '라디오 데이즈' 등 상큼한 발상

하거나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지'는 1930년대 식민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아버지를 둔 조선총독부 서기 이해명과 바랍둥이 카페 여급 조난실의 사랑놀이를 그린 작품이다.

'연예시대' '작업의 정석' 등을 통해 연기파 배우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손예진에 캐스팅된 '낙랑클럽'은 전곡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국의 마타하리' 여간첩 김수임과 경성대 출신 사회주의자 이강국의 운명적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영원한 제국',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을 만든 박종원 감독이 오랜만에 메가폰을 잡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국 이야기를 담은 하기호 감독의 소동극 '라디오 데이즈'도 크랭크 인을 기다리고 있다. 영화의 주배경은 1932년 아나운서를 모집한 후 처음으로 한국어와 일본어로 방송을 했던 최초의 라디오 방송국인 경성방송국. 한국어 최초의 라디오극 '사랑의 불꽃'을 만들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릴 예정이다.

신인 형제 감독 정가형제가 연출을 맡은 '기담'은 1941년 경성 최초의 서양식 병원으로 설립된 가상공간 안생병원에서 사들간 벌어지는 공포스러운 사건을 그린다.

김태우와 김보경이 동경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의사 부부를 연기하고, '비밀한 거리'에서 주목받은 진구가 젊은 의사 역할을 맡았다.

그밖에 '여자 정해' '러브 토크' 등 저예산 영화로 주목받은 이윤기 감독은 1930년대 인천의 한 클럽을 배경으로 한일 양아치들의 대결을 그린 '클럽살랑'을 준비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손예진

**주목! 이영희 휴 그랜트 & 드류 베리모어 환상의 화음**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노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사랑에 비유하는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물.

198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아이돌 그룹 '팝' 출신 음악가 알렉스는 이제 테마 파크에서 지난 히트곡이나 부르는 신세가 된 지 오래다. 알렉스는 어느날 슈퍼스타 콜안이 자신과 함께 부를 곡을 직접, 그리고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듀엣을 해 보자는 제안을 받는다. 작곡에는 자신 있었지만 작사에는 영 재주가 없어 노심초사 하던 알렉스는 어느날 화초를 돌보던 소피 피셔의 작사 능력을 알아보고 동업을 제안한다.



'브리지 존스의 일기' '노팅힐' '웨딩 싱어' '첫 키스만 50번째' 등 이미 로맨틱 코미디에서 장기를 발휘해온 휴 그랜트와 드류 베리모어가 주연을 맡았다. <12세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엔니오 모리코네 헌정음반 발매**

엔니오 모리코네의 아카데미 평생공로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세계적인 스타들이 참여한 헌정음반이 발매됐다. 소니비엔지는 모리코네의 제79회 아카데미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한 헌정음반인 '우 러브 엔니오 모리코네 (We All Love Ennio Morricone)'를 발매했다.

이 음반에는 켈린 디온, 안드레아 보첼리, 요요마, 허비 핸콕, 메탈리카 등 장르를 초월한 스타들이 대거 참여해 '윈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황야의 무법자' 등 모리코네의 대표 영화음악을 각자의 색깔로 편곡, 연주, 노래했다.

192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난 모리코네는 '미션' (1986년), '언터처블' (1987년), '백시' (1991년) 등으로 총 다섯번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 됐지만 단 한번도 영화음악상을 수상하지 못했다.



김보경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b>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b> 휴 그랜트, 드류 베리모어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b>종지야! 한가</b> '말이론'의 정윤철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독특한 가족 이야기.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이
<b>한니발 라이징</b> 한니발 렉터 박사의 탄생기를 다룬 공포물. 18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 씨너스 전대, 하이, 프리미어스 제일
<b>행복을 찾아서</b> 노숙자에서 웰스트리트 최고의 투자자로 성공한 인물의 실화를 다룬 웰스미스 주연의 휴먼 드라마.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 CGV(상무·첨단), 프리미어스 제일
<b>홀리걸스</b> 일본 소녀들의 유쾌한 성장기. 전체 관람가.	메가박스, CGV 상무
<b>비벨</b> 9·11 이후 세계를 들여다본 영화. 18세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 CGV(상무·첨단) 하이
<b>드림걸즈</b> 슈프림스의 실화를 모태로 한 뮤지컬 영화. 12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미어스 제일
<b>1번가의 기적</b> 절거 위기에 놓인 달동네에서 벌어지는 기적같은 이야기로 임창정·하지원이 주연을 맡았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미어스 제일, 씨너스 전대, 스타박스, 하이
<b>복면달호</b>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록 가수 이야기로 개그맨 이경규가 제작을 맡아 화제가 된 작품.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미어스 제일, 씨너스 전대, 스타박스, 하이
<b>비밀피기 좋은날</b> 유부녀들의 일탈을 그린 영화로 김혜수·윤진서 주연. 18세 관람가.	롯데(첨단),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이, 스타박스
<b>그놈 목소리</b> 실화인 이형호군 유괴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로 설경구, 김남주가 주연을 맡았다. 12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 프리미어스 제일, 씨너스 전대, 하이
<b>미강호텔</b> 대량살적 당한 조폭들의 좌충우돌 호텔 경영기. 김석훈·김성민이 주연을 맡았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미어스 제일, 씨너스 전대, 하이, 스타박스
<b>텍사스 전기톱 연쇄 살인사건 0</b> 인간 도살자 레더 페이스의 출생과 성장을 다룬 공포물. 18세 관람가.	롯데(첨단),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스타박스, 하이
<b>김관장 대 김관장 대 김관장</b> 콩후, 검도, 백견 도정의 관장의 코미디. 15세 관람가.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하이, 스타박스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3 세기스타·세기보청기**

다들 보셨죠? 무한재능 개성있는 세기보청기! 세기보청기! 세기보청기!

3월 3일 토요일